그리스도왕 대축일(2019년 11월 24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혹시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지 아시나요? 인간 예수님의 피는 AB 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성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미사 중에 받아모시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거짓말~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이 진짜 계신지, 성령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거짓말 ~ 성령을 믿으십니까? 진짜? 거짓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게 맞나요? 잘 모르겠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해지려면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믿지 않으니까 그런거죠. 믿음은 내 마음의 문제 입니다. 믿음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나이 26살이 되기 전까지. 정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었죠.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쁜 마누라 얻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냥 모범생이었고, 남한테 피해 안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저 이기적이고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바라본 조그만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물 안 세상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용기를 내서, 우물 밖으로 나와서 봤더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커다란 세상이 내 앞에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새롭게 바라본 우물 밖의 세상은 정말 벅차고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물 밖으로 한 걸음 나서려고 하는 용기와 노력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우물 안에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가톨릭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때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성당 미사에 처음으로 참례하게 되었고, 제 생애 첫번째 미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죠. 그 후로 제 마음 안에 질문이 하나씩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사람들은 그 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 분이 세상에 존재하셨는가? 왜 세상은 그 옛날 사람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분이 진짜로 부활하셨을까?

그런 질문과 함께,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잔잔했던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져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처럼, 우물 안에 갇혀 있었던 제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속의 그런 작은 변화가 제 가슴을 서서히 뜨겁게 했고, 벅차게 했습니다. 진짜로 큰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게 찾아온 변화를 시작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변하게 될 거라고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성당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고, 여기 저기 봉사 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방 일을 아주 잘 합니다. 한 동안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하루에 1000명 정도 식사 준비를 하는 주방에서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몇 년 하니까 주방일 하는 수준이 거의 식당 주방장 수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였어요. 확실히 믿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진짜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셨고, 그 분의 부활은 진짜 사실이었으며, 우리가 미사 때 받아 모시는 빵과 포도주는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피였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상상이나 허구로 꾸며 놓은 이야기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친 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의 벅차고 뜨거운 감동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행복과 자유를 향해 가는 진짜 벅찬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태리 남부에 가면 ‘란치아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체의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도중에, 진짜로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었죠. 보고를 받은 교황청 조사단에서 조사를 했었고, 교회 단체의 조사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기적이나 종교적인 현상을 전혀 믿지 않고, 신앙이 전혀 없는 의학자들을 선발해서 몇 개월 동안 성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살로 변한 빵 덩어리는 인간의 심장 근육 조직이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 포도주는 인간의 AB형의 혈액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지금도 란치아노의 그 성당에 가면, 그 당시 성체 변화의 기적을 일으켰던 빵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몸과 피가 보관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체 성혈 앞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매번 미사를 봉헌할 때, 미사 중에, 언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고 변하는지 아십니까? 사제가 두 팔을 빵과 포도주 위에 올리고,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긋는 순간이 있습니다. 미사 때 자세히 보세요. 그냥 눈 감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빵과 포도주 위에 사제가 성령의 힘을 청하면서, 십자가를 긋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성체 변화’라고 합니다. 이 성체 변화는 실체 변화입니다.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번 모시는 예수님의 몸은 진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은 진짜로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랍고 벅찬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실제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아람어입니다.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아람어가 아직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는데, ‘호산나’ 와 ‘아멘’ 입니다.

‘아멘’은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답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아멘”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는 정말 많은 상징과 의미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제의도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입는 옷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장백의’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예요. 예수님도 분명 이런 옷을 입고, 유다 땅을 걸어다니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띠를 두릅니다. 이 띠는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대’를 합니다. ‘영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고 있는 제의는 예수님 당시 목동들이 입었던 ‘판초’입니다. 판초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비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는데 필요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 분의 양떼 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유다 들판을 다니실 때 이런 판초 한 장 지참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미사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려 합니다. 이런 시도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도들 때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 미사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랑, 그리고 그 분의 희생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서 이 미사가 봉헌되고 있을 겁니다. 한 순간도 빠짐없이 이 미사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봉헌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성찬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인류 구원의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와 있는 것입니다. 미사가 이런 겁니다.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안 오면 괜히 찝찝하니까 그냥 오고, 다른 일 생기면 빠져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가 없으면 절대로 세상을 볼 수 가 없고,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하느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교회 전례력으로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고, 전례력은 2020년이 시작됩니다. 세월이 무진장 빠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게 평생 갈구하던 행복도, 그토록 소중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내 인생도, 내가 그토록 고집부리며 지키려 했던 내 체면이나 자존심도, 세상의 부귀 영화도 결국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 사라져 버리고 말 것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믿음은 우리 삶이 우물 안 개구리 시절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세상, 벅차고 감동적인 인생을 느낄 수 있도록, 우주적인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은 내 자신의 몫입니다.